



CONTENTS

01 eco friend eco brand

10 기업 개요

- 10 CEO 메시지
- 12 이사회 소개
- 14 연혁
- 16 하이라이트
- 18 비전 및 전략

20 사업 영역

- 22 브랜드 사업
- 26 유통 사업
- 32 자산개발 사업
- 34 투자 사업

36 LS그룹

38 재무 정보

- 39 주요 경영지표
- 40 경영실적 분석
- 44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45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 46 재무상태표
- 49 손익계산서
- 5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52 자본변동표
- 53 현금흐름표

걷다보면

뛰다보면

오르다보면





Feel the soft touch on the ground



두 발로 전해오는 부드러운 대지의 감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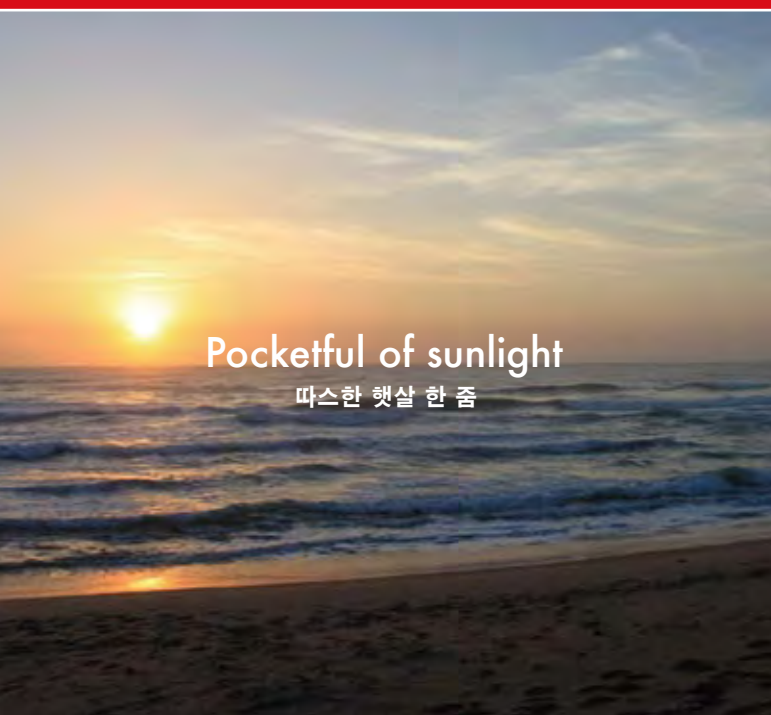


Feel the gentle breeze
touching your hands

손가락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산들바람



보이지 않던 꽃들이,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만질 수 없던 햇살이,
마음 속으로 들어와 친구가 됩니다.



Pocketful of sunlight

따스한 햇살 한 줌

Grass swaying in the breeze

살랑이는 바람의 인사





Scent of flower

달콤한 들꽃 향기



Smile of happiness

싱그러운 환한 미소



LS 네트워크

속도와 목표가 전부는 아님을 알게 해준
자연의 친구 Eco Friend와 함께
나 스스로가, 그리고 나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CEO 메시지

**브랜드 사업의 지속적인 시장우위와
신규 유통사업의 성공적인 진출을 바탕으로
브랜드 유통 전문기업으로서의
성공적인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및 고객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변함없는 관심과 한결같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LS네트웍스는 2010년 브랜드 유통 전문기업으로의 실행을 본격화하고, 수익형 사업구조로의 변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프로스펙스를 비롯한 기존 브랜드 사업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임대수입도 대폭 증가되었으며 신규 유통 사업의 시장진입 역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경영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2010년 LS네트웍스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32% 성장한 3,582억 원을 달성하였고, 영업이익도 전년대비 43% 성장한 299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매출액은 LS네트웍스가 LS그룹에 합류한 이래 사상 최대이자, 첫 3,000억 원을 돌파한 매우 뜻 깊은 성과입니다. 워킹시장의 지속적 확장에 따라 프로스펙스의 매출액은 2009년 2,250억 원에서 2010년 2,562억 원으로 증가했고, 2009년 론칭한 스케쳐스의 매출액도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6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신규 진출한 자전거 유통체인 바이클로를 비롯하여 토요타 자동차 딜러 등 유통 사업에서도 안정적인 시장진입이 이뤄졌으며, 리모델링이 완료된 LS용산타워 역시 전년대비 약 30% 증가한 347억 원의 임대수익을 올리면서 안정적인 현금창출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2010년은 재무성과 외에도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브랜드 사업부문에서는 '프로스펙스 W'가 국내 워킹화 시장에서 독보적인 매출 신장과 함께 워킹화 부문 시장인지도 1위를 시현하였으며, 몽벨, 스케쳐스, 잭울프스킨을 중심으로 한 신규 브랜드의 약진도 눈부셨습니다. 아울러, 신규 론칭한 바이클로는 국내 자전거 유통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며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글로벌상사 사업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전략적 해외거점에 조직을 구성하며 신 사업 발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러한 성과는 주주와 고객가치 향상을 최우선으로 실천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이며, 이는 LS네트웍스에 보내주신 주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011년 우리 앞에 직면한 국내·외 경영환경은 결코 쉽지 않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LS네트웍스는 성과중심의 완전한 책임 경영체제로 탈바꿈하고자 기존의 사업구조를 '브랜드 BU'와 '상사 BU'라는 양대 축으로 조직하였습니다. 이는 브랜드 유통 전문기업을 추구하는 LS네트웍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반영된 결과이며, 2015년까지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고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비전이 담긴 변화입니다.
- 도전하는 자의 미래는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 뜨거운 열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LS네트웍스 전 임직원은 올 한 해에도 주주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사장 김승동

김 승 동

이사회 소개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으로
더 큰 도전과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회장/이사회 의장 구자열



선진지배구조를 통해
기업내면의 건강함을
추구하겠습니다

회장 구자용



이사회 중심의 투명하고
독립된 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회장 이대훈



자율 독립경영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경영활동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대표이사/사장 김승동



경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이사/사장 박재범

LS네트웍스는 선진 지배구조를 갖춘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서 이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는 LS그룹이 설립 당시부터 추구해 오던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과 투명경영' 철학이 뒷받침 된 것으로, 이사회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경영성과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 하며 CEO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회사를 소신 있게 운영하는 독립경영 및 책임경영시스템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를 내다본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지난 2008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LS그룹과 함께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고 경영의 효율성 또한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S네트웍스는 최고경영자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서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통한 경영시스템으로 경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적인 미래성장을 위한 책임 있는 도전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습니다.



신뢰받을 수 있는
선진형 경영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CFO 안경한



체계적인 이사회 운영을 통해
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사외이사 오호수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소신과 책임감 있는 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사외이사 금병주

연혁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의 빛나는 자부심으로
글로벌 기업이라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1949



▶ 한국경제의 재건과 함께 시작된 첫걸음

2000

- 서태지 광고 모델 계약 체결

1994

ISO 9001 인증획득

1998

- 국가고객만족도(NCSI) 스포츠화부문 1위

1988

- '88 서울올림픽 공식 후원

1985

- '86 서울아시안게임 공식 후원

1982

- '82 뉴델리아시안게임 출전선수 후원

1973

- 기업공개

1949

- 회사(주)국제화학 설립

1981

- 프로스펙스 브랜드 출시

- 세계적 스포츠지 'Runner's World' Five Star 등급 수여

- 미국 씨어즈社에 5천만 족 수출

▶ 브랜드 수출국 시대를 견인한 프로스펙스의 성장



1990



2000

▶ 최고의 전문 스포츠 브랜드로 자리매김

2009

- '성장형 운동화 GH+' 론칭
- '스포츠 워킹화 W' 론칭
- (주)FAST(스케처스 운영) 흡수합병
- 토요타 자동차 딜러 사업 전개

2011

- 아웃도어 멀티 브랜드 유통 사업 진출 (웍앤웍)

2008

- LS네트웍스로 사명변경
- 프로스펙스 신규 BI 론칭
- 잭울프스킨 론칭
- (주)오디캠프(몽벨 운영) 인수(자회사)
- 이트레이드증권 PEF참여

2010

- 자전거 유통체인 사업 진출(바이클로)
- LS 용산타워 리모델링 완료

2007

- LS그룹 계열사 편입
- (주)케이제이 모터라드(BMW 모터사이클 딜러) 설립
- 대한민국 스포츠 산업대상 최우수상 수상

▶ 스포츠 기업에서 브랜드 유통 전문기업으로 도약

2011



하이라이트

**브랜드 & 유통 전문기업을 향한
힘찬 발걸음으로
지속 성장의 강한 토대를 다졌습니다**

01 프로스펙스 '스포츠·레저 브랜드 대상' 수상

지난해 2월 23일 스포츠 칸이 주최한 '제 4회 스포츠·레저 브랜드 대상'에서 프로스펙스의 '스포츠 워킹화 W' 광고가 종합대상과 크리에이티브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브랜드 대상은 한 해 동안에 소비자가 가장 많이 애용했거나 관심을 가진 스포츠·레저 브랜드의 각 부문별 인지도, 만족도, 잠재 구매도 등을 조사해 선정하는 것으로, 프로스펙스는 크리에이티브 부문의 전문가 평가에서 3개 항목 모두 골고루 높은 평가를 받아 스포츠 레저 부문에서 종합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워킹 운동에 관련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보다 안전하고 극대화된 워킹 운동 효과를 워커가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프로스펙스의 의지를 소비자에게 잘 전달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02 토요타 일산 종합 서비스센터 설립

LS네트웍스는 2010년 4월 22일 경기 고양시 일산에 토요타 종합 서비스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일산 서비스센터는 연면적 3,549㎡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일산 수입차 서비스센터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간단한 정비는 물론 차체 및 판금 도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간 최대 2만대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LS네트웍스는 서울 강북지역에서 유일하게 토요타 자동차 딜러십을 확보해 지난 2009년부터 유통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번 일산 서비스센터 오픈을 계기로 판매에서 A/S에 이르는 수입자동차 분야의 서비스 기반을 완성하며, 강북 및 경기 서북부 지역에서 보다 편리하고 앞선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3 자전거 전문 유통브랜드 바이클로(Biclo) 론칭

LS네트웍스는 2010년 바이클로라는 브랜드로 자전거 유통 사업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바이클로는 국내·외 브랜드 자전거 제품 및 부품, 액세서리 판매는 물론, 미캐닉 전문가의 자전거 세팅과 상담 서비스, 교육프로그램, 커뮤니티 공간에 이르기까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전거 전문 유통브랜드입니다. 4월 15일 서울 잠원동에 1호점을 선보인 데 이어,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6개 매장을 선보였으며, 이를 통해 스포츠브랜드 전문 유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바이클로는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하고 우수한 제품, 표준화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전거 유통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04 LS용산타워 첨단 랜드마크 건물로 재탄생

독특한 외관으로 서울 도심의 대표 건물이었으나 설비 노후화로 지난 2007년 11월에 리모델링에 들어갔던 LS용산타워가 2010년 5월 27일 3년 동안의 공사를 무사히 마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했습니다. 건설 업계 최초로 시도된 '재실(在室)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입주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한 LS용산타워는 친환경 에너지 건물이자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춘 첨단 빌딩으로 재탄생하며 높은 임대수익과 함께 국제 업무 지구 용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LS네트웍스는 LS용산타워 리모델링을 계기로 자산 사업 부문과 브랜드 사업 부문간의 시너지를 높여 브랜드 유통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05 프로스펙스 워킹화 부문 1위 브랜드 선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워킹화 부문 인지도 조사에서 프로스펙스가 명실상부한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됐습니다. 2010년 5월 31일 서울 부산 등 5대 도시에 거주하는 20~50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HS애드 커뮤니케이션전략연구소가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서, 프로스펙스는 2위인 외국계 브랜드를 두 배 이상의 격차로 누르며 압도적인 고객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외국계 브랜드들이 독주하던 스포츠브랜드 시장에 스포츠 워킹 토탈 브랜드 '프로스펙스 W'를 선보이며 디자인과 기능으로 정면 승부해 국내 브랜드의 위상을 높인 쾌거이며, 철저한 시장분석과 지속적인 R&D 투자 등으로 시장을 선도해온 노력이 고객으로부터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06 광저우 금메달리스트 공식후원

자전거 전문 유통브랜드인 바이클로는 지난해 12월 16일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사이클 부문 금메달리스트 6명을 초청해 팬들과 함께하는 사인회를 열었습니다. 송파점과 반포점에서 열린 이번 사인회는 지난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바이클로가 후원하여 사이클 종목 사상 최대의 성과를 내고 돌아온 자랑스런 사이클 영웅인 선수들의 노고를 기리고, 시민들과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세계 최고의 사이클 선수들을 직접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열렸습니다. 바이클로는 이 밖에도 'LS바이클로 페스티벌' 개최, '2010 Tour de DMZ-서울 국제사이클 대회' 협찬 등을 통해 국내 자전거 문화의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07 서울시 소방안전관리 안전대상 수상

LS용산타워는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주최한 '제3회 안전관리 모범사업장' 시상식에서 안전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에서 LS용산타워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화재를 감지하면 입주자에게 문자서비스를 전송하는 첨단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화재 및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안전관리 모범사업장으로 선정된 LS용산타워는 인증패와 인증서를 받았으며,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소방검사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2년간 면제받게 됩니다. LS용산타워는 앞으로도 소방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안전하고 쾌적한 모범사업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8 토요타 용산 사랑 나눔 기부 행사

LS네트웍스의 자동차 부문 유통체인인 토요타 용산은 지난해 12월 30일 '토요타 사랑 나눔' 성금 기부 행사를 갖고 성금 1,880만 원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아동복지법인 해심원에 전달하였습니다. '토요타 사랑 나눔' 성금은 토요타 용산 임직원들이 2010년 1월부터 자발적으로 급여의 1%를 적립해 조성한 것이어서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요타 용산은 앞으로도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지역 내 불우 아동 및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의 나눔 활동을 계속 전개해,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전 및 전략

**2015년까지 매출 1조 원,
글로벌 소비재 브랜드 유통 전문기업 도약**

LS네트웍스는 에코브랜드와 에코비즈니스를 중심으로 기존 사업부문을 확대·육성하고 신규 사업에 적극 진출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비전 201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 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LS네트웍스의 핵심사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자전거 유통체인 바이클로, 워킹 전문 멀티 브랜드 워안톡, 토요타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 등 2010년 새롭게 선보인 에코비즈니스 사업의 조기 안착을 통해, 2015년까지 연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고 글로벌 브랜드 유통 전문기업으로 제 2의 도약을 이룰 것입니다. 더불어 소비재 부문 브랜드 유통 전문기업으로서 LS 그룹과 소비자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며 그룹 내 핵심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고객의 삶을 밝은 미래로 이어주는 행복한 브랜드 유통 전문기업

NETWORKING YOUR

에코브랜드 사업에 핵심 역량 집중

친환경 스포츠 아웃도어를 지향하는 브랜드 사업에 핵심 역량을 집중해 성장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다양한 고객층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브랜드 사업 솔루션을 완성할 것입니다.

- '스포츠 워킹화 W'와 '성장형 운동화 GH+'의 선풍적인 인기로 걷기 문화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프로스펙스는 향후 지속적인 한국형 워킹화의 출시를 통해 전문 스포츠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브랜드 선호도 1위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2010년 눈부신 약진을 보여준 미국 라이프스타일 풋웨어 1위 브랜드 스케쳐스, 독일 No.1 프리미엄 아웃도어 브랜드 잭울프스킨, 일본 최고 아웃도어 브랜드 몽벨의 유통망 확대를 통해 대중성을 확보하고 차세대 핵심 브랜드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신 유통 사업 진출, 에코비즈니스의 확대

더불어 신 성장동력으로서 2010년 새롭게 선보인 신 유통 사업들을 통하여 에코비즈니스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했으며,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지속적인 기업가치의 향상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 더 나아가 신규사업과 기존 브랜드 사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 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선도하는 한편, 글로벌상사 사업 진출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LS용산타워를 중심으로 한 자산개발 사업과 투자 사업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고, 보유자산 개발에 더욱 매진할 계획입니다.

보유자산 가치 극대화

신 수종사업 발굴을 통한 SYNERGY 창출

BRAND 사업 SOLUTION 완성

LIFE WITH FUTURE

보다 가치 있는 고객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브랜드 사업 | Consumer Brand Business

프로스펙스

스케쳐스

잭윌포스킨

몽벨

유통 사업 | Consumer Retail Business

토요타 용산 딜러

케이제이 모터라드

자전거 유통체인(바이클로)

아웃도어 멀티 브랜드(웍앤특)

글로벌상사

LS네트웍스는 기존의 대표 브랜드인 프로스펙스 이외에도 스케처스, 잭을프스킨, 몽벨 등 해외 유명 브랜드들을 잇달아 국내에 소개하며 브랜드 사업 부문을 대폭 강화하고, 토요타 자동차를 포함한 BMW 모터사이클 등 자동차 유통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미래의 성장을 위해 자전거 유통체인 사업과 아웃도어 멀티 브랜드 유통 사업 등 신 성장동력 사업으로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기존 제조회사 이미지에서 브랜드 유통 전문회사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또한 안정적인 자금창출을 위한 자산개발 사업과 투자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자산개발 사업 | Asset Management Business

LS용산타워

김해/인천/성남/상주

투자 사업 | Investment Business

이트레이드증권 PEF

KTM 모터사이클

푸룻뱅크

● 브랜드 사업

Consumer Brand Business

다양한 고객을 만족시키는 BRAND SOLUTION 완성

브랜드 사업은 한국의 대표 스포츠 전문 브랜드인 프로스펙스를 기반으로, 세계 제일의 라이프스타일 풋웨어 브랜드 스케쳐스와 독일 프리미엄 아웃도어 잭울프스킨, 일본 최고의 아웃도어 몽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로스펙스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하여 시장 점유율 3위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한편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신규 론칭 브랜드인 스케쳐스를 차세대 핵심 브랜드로 육성하고, 잭울프스킨과 몽벨은 우수한 기능과 디자인을 바탕으로 폭넓은 대중성 확보에 보다 주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신규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는 브랜드 솔루션을 구축, LS그룹 내 소비재 부문을 대표하는 핵심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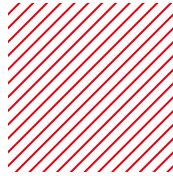


프로스펙스

걷기 문화의 아이콘!

과학적인 기능으로 앞서가는

최고의 스포츠 워킹 브랜드입니다



LS네트웍스의 대표 스포츠브랜드인 프로스펙스는 지난 2009년 하위 브랜드인 '프로스펙스 W'라는 워킹화를 출시, 현재 1위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며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스포츠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 '프로스펙스 W'는 한국인의 발 모양과 체형은 물론, 초보에서 헤비 워커에 이르기까지 워킹 타겟층을 세분화해 개발한 국내 최초의 토탈 워킹전문 브랜드입니다.
- 프로스펙스는 스포츠 워킹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워킹 형태에 따라 각 특성에 맞는 기능성 워킹화를 매트릭스별로 구분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레길, 둘레길 등 트레일 워킹 열풍이 불면서 이에 최적화된 트레일 워킹화를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임산부 전용화를 개발, 시장의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던 워킹화를 비롯한 워킹 용품시장은 프로스펙스의 시장 창출 이후 급속히 확대되어 2010년에는 약 7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으며, 이 같은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워킹화 인지도에서 2, 3위와 큰 격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프로스펙스의 매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 프로스펙스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에 최적화된 신제품 개발을 통하여 워킹화 1위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차별화된 제품전략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브랜드를 넘어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로 거듭날 것입니다.

www.prospec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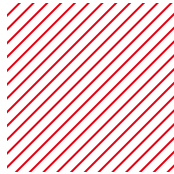


스케쳐스

스케쳐스는 LS네트웍스가 한국 내 독점 판매 및 라이선스를 통해 선보이고 있는 세계 제일의 라이프스타일 풋웨어 브랜드입니다. 199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맨하탄 비치에서 스니커즈 브랜드로 탄생한 스케쳐스는 당시 미국 10대들의 유행어였던 '활발하고 도전적인 태도의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현재는 스타일리쉬한 기능패션 시장의 리딩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라이프스타일, 스포츠, 패션스트리트, 캐주얼, 키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한 매장에서 선보이는 멀티 카테고리 컨셉의 단일브랜드입니다.

- 12개의 멀티 카테고리에서 7,000여 개 이상의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는 스케쳐스는 탁월한 품질과 디자인 경쟁력으로 미국 시장에서 나이키에 이어 매출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진출, 다양한 고객층의 까다로운 패션 취향을 소화해내는 세계 유일의 브랜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 LS네트웍스는 부츠, 샌들 등의 라이프스타일 패션 라인부터 스포티한 액티브 라인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을 바탕으로 헐리웃 셀러브리티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스케쳐스를 한국의 고객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세계적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육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헐리웃 셀러브리티들의 탁월한 선택!

세계 제일의 라이프스타일 풋웨어 브랜드입니다



www.skecherskorea.co.kr



잭울프스킨

잭울프스킨은 창립자 울리히 다우지엔(Ulrich Dausien)에 의해 1981년 독일에서 탄생하여 유럽 아웃도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상으로 인정받은 프리미엄 아웃도어 브랜드입니다. 현재, 전 세계 20개국 300여 개의 프랜차이즈 매장과 2,700여 개의 소매점을 구축하며 유럽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으며, 브랜드의 감성적 가치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성공신화를 일구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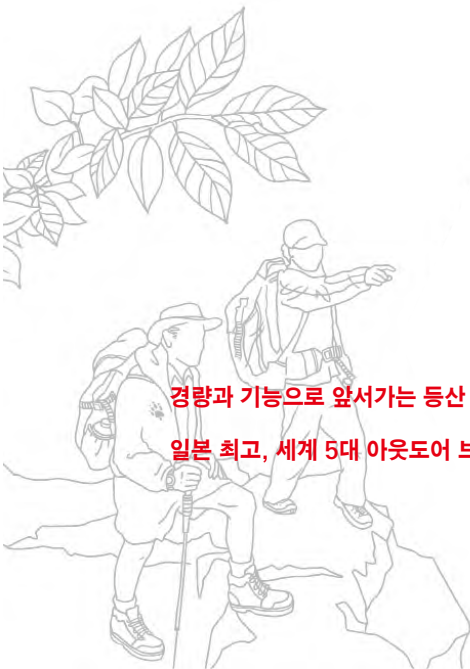
- 최첨단 소재 기술로 실용성과 편안함을 중시하는 유로피안 스타일과 극한의 자연환경에서부터 레저 활동 및 일상 생활에서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다양한 아웃도어 컬렉션은 잭울프스킨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세계적 탐험가들과 소비자들의 전폭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LS네트웍스는 잭울프스킨을 통해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모든 고객들이 보다 큰 편안함과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럽 아웃도어 시장의 최강자!

독일에서 온 프리미엄 아웃도어 브랜드입니다



www.jack-wolfskin.com



경량과 기능으로 앞서가는 등산 브랜드!

일본 최고, 세계 5대 아웃도어 브랜드입니다

몽벨

몽벨은 1975년 일본 최고의 산악인 이사무 다츠노(Isamu Tastsuno)가 설립한 일본 제일의 종합 아웃도어 브랜드이자, 세계 5대 아웃도어 브랜드입니다. 몽벨은 프랑스어로 '몽(Mont : 산)'과 '벨(Bell : 아름다운)'의 합성어로 '아름다운 산'을 의미합니다. 대자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Light & Fast'와 'Function is Beauty'를 컨셉으로 첨단 기술과 소재를 이용해 최상의 기능으로 인체를 쾌적하게 보호하는 의류와 용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등산을 비롯한 낚시, 카누, 여행, 자전거 등 다양한 아웃도어 전문 의류와 용품을 생산, 어린이부터 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을 위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LS네트웍스는 앞으로도 몽벨과 함께 고객 여러분이 원하는 최적의 아웃도어 스타일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습니다.

www.montbell.co.kr





유통 사업

Consumer Retail Business

웰빙 여가문화를 선도하는 에코비즈니스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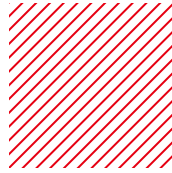
유통 사업은 세계 최고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토요타 자동차와 BMW 모터사이클을 선보이고 있으며, 스포츠 전문 브랜드 기업이라는 기존 사업 방향과 웰빙 트렌드에 맞춰 새롭게 자전거 전문 유통체인 사업과 아웃도어 멀티 브랜드 유통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또한, 미래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상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LS네트웍스는 그룹 내 대표 소비자 전문 유통회사이자, 건강하고 풍요로운 여가문화를 선도하는 국내 대표 에코비즈니스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biciclo



자동차를 통한 풍요로운 사회 만들기,
LS네트웍스가 함께 만듭니다



토요타 용산 딜러

LS네트웍스 토요타 용산은 2009년 10월, 토요타 브랜드의 국내 론칭과 동시에 서울의 신도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용산지역의 랜드마크인 LS 용산타워에 전시장을 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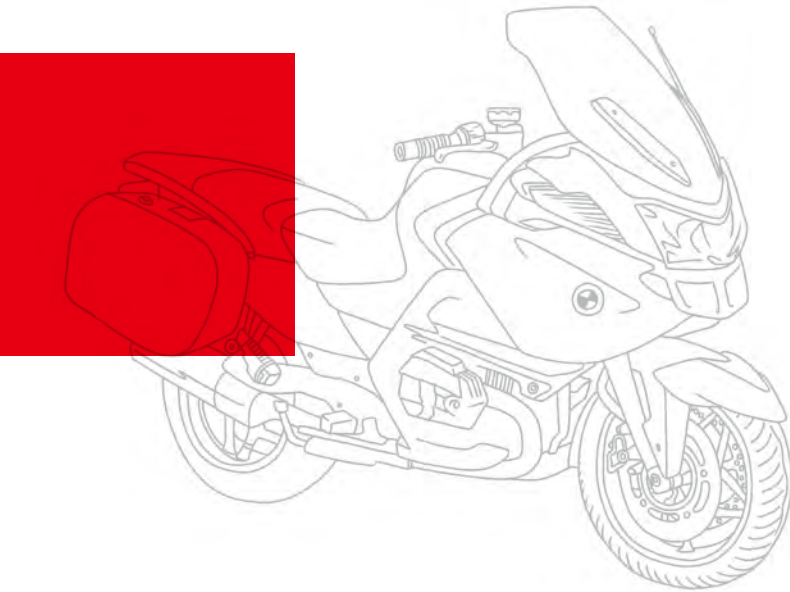
- LS용산타워 Annex관에 위치한 토요타 용산 전시장은 총 건축 면적 5,200㎡에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 약 1,400대의 판매실적을 올리며 강남 위주의 수입차 시장에 대대적인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완벽한 서비스만이 고객에게 보답하는 길이다'라는 기치 아래, 최상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 용산 전시장 지하 1층에 1,903㎡ 규모의 용산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4월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5,216㎡ 규모의 새로운 종합서비스센터를 열었습니다. 2곳의 종합서비스센터는 수입차업계 최대 규모의 서비스 시설로, 판매에서 A/S에 이르는 수입자동차 분야의 서비스 기반을 완성하여 서울 강북 및 경기 서북부 지역에서 보다 편리하고 앞서나가는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LS네트웍스 토요타 용산은 첨단 정비기술과 고객만족 서비스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수한 인재를 통한 고객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2010년 장한평점에 이어서 2011년 3월에 일산점을 선보이는 등 판매망을 확충하는 한편, 코롤라, 시에나 등 토요타 자동차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www.toyotayongs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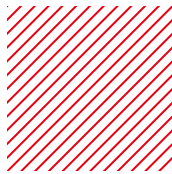




케이제이 모터라드

케이제이 모터라드는 LS네트웍스의 자회사로서 2007년 8월 출범하여 모터라드 강남(2008년 2월 개점)과 모터라드 부산(2009년 8월 개점) 쇼룸을 잇따라 열며, 국내에 BMW 모터사이클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쇼룸과 정비실이 함께 있는 공식 전시장은 고객에게 세계 최고의 모터사이클 구입부터 정비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BMW 모터사이클은 프리미엄 자동차의 대명사인 독일의 명차 브랜드 BMW에서 만든 프리미엄 모터사이클의 선두주자입니다. 1923년 파리 및 독일 모터쇼에서 첫 선을 보인 BMW 최초의 모터사이클 R32는 횡 방향으로 설치된 수평대향 2기통 박서 엔진과 엔진에 직접 연결된 변속기, 고 드라이브 샤프트 방식을 갖춘 혁신적인 모델로 발매 당시 뜨거운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후 끊임없는 제품 개발과 앞선 기술력으로 전 세계의 프리미엄 모터사이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BMW 모터사이클은 현재 22종류의 모터사이클을 선보이며, 최고의 프리미엄 모터사이클을 기대하는 전 세계 고객들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케이제이 모터라드는 앞으로 BMW 모터사이클과 함께 고객의 안전한 라이딩과 니즈를 최우선으로 하고, 모터사이클 문화를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오직 한 사람!

당신을 위해 준비한 최고의 프리미엄 모터사이클입니다



자전거 유통체인 (바이클로)

바이클로는 자전거에 관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LS네트웍스의 자전거 전문 유통브랜드입니다. 환경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LS네트웍스의 Eco Friend 철학이 반영된 신사업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전거 생활을 즐기고 웰빙 스포츠의 대명사인 자전거 문화가 활성화되길 바라며 2010년에 새롭게 론칭되었습니다. 브랜드명인 바이클로(Biclo)는 Bike(자전거)와 Close(가까운), 路(길 로)의 합성어로 행복한 자전거 생활을 도와주는 평생 파트너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 바이클로는 사업 구상부터 기존의 일반 자전거 매장과는 차별화된 자전거 전문 매장입니다. 국내 최초로 고객에게 꼭 맞는 의류, 부품, 용품, 액세서리까지 자전거에 관한 모든 솔루션을 찾아주는 원스탑 쇼핑이 가능하고, 풍부한 경험의 미케닉 전문가가 상주하여 고객 체형에 맞는 자전거 세팅 및 1:1 상담의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보자부터 마니아까지 수준별 자전거 코스 및 정비 교육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자전거 문화 공간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화된 체계적인 자전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010년 4월, 1호 반포점을 시작으로 용산, 목동, 구로, 송파, 일산 등 6개 지역에 매장을 개설해 고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1년 상반기까지 총 13개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S네트웍스는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하고 우수한 제품, 체계적인 정비서비스와 표준화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바이클로를 자전거 유통의 표준을 여는 대한민국 최고의 No.1 자전거 유통 체인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바이크 파트너!

바이클로가 자전거 유통의 표준을 열어갑니다



www.biclo.co.kr





www.walkntalk.co.kr

아웃도어 멀티 브랜드 유통 (웍앤티톡)

워킹을 테마로 에코 트래블 문화를 선도하는
신개념의 멀티 브랜드 매장입니다



LS네트웍스는 걷기와 여가문화의 확산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는 아웃도어 스포츠 시장의 활성화로, 소비자의 다양한 상품 라인업 요구와 전문 유통채널에 대한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아웃도어 멀티 브랜드 유통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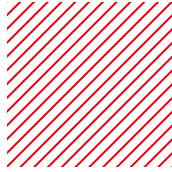
- 그 첫 결실로서 2011년 2월 대치동에 웍앤티톡(Walk & Talk) 1호점을 론칭하고 90여 개에 달하는 국내·외 명품 아웃도어 브랜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웍앤티톡은 프로스펙스와 몽벨 등 LS네트웍스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비롯해 북미와 유럽 명품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의 워킹, 트레킹, 하이킹 용품은 물론, 국내 최초로 소개하는 스웨덴 브랜드 픽 퍼포먼스와 스위스의 오들로 등 해외 유수의 프리미엄 아웃도어 브랜드의 다양한 아이템을 총망라한 국내 최대의 도보여행 전문 멀티 브랜드 매장입니다.
- 워킹을 테마로 한 에코 트래블 매장인 웍앤티톡은 여행 강도별로 차별화된 준비물과 코디 솔루션에 맞는 존(zone)으로 구성되어 고객의 활동 목적에 따라 제품의 선택과 구매가 용이하도록 했으며, 더 나아가 고객에게 여행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 여행에 관련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는 'Travel Activity 전문매장'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입니다.
- LS네트웍스는 2011년 안에 4~5개의 매장을 추가로 개설하고 2013년까지 전국 30개 매장으로 확대해 기존 브랜드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웍앤티톡을 국내 대표 생활스포츠 전문 유통채인으로 성장시켜 자연과 함께 건강한 삶을 즐기려는 고객들에게 최고의 아웃도어 라이프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글로벌상사

LS네트웍스는 나날이 치열해져 가는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 속에서 다가올 미래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규 사업의 일환으로서 글로벌상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수출·입, 삼국간 무역, 수입·유통 등 사업기능을 다원화하여 상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그룹사 제품,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 제품 및 플랜트 수출과 해외로부터 기계·설비 및 원자재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한국과 상호 보완성이 큰 시장인 러시아, 중앙아시아, 구동구권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 주목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사업 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전략지역인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 주요사업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 또한, 맨홀 제조와 e-Solution사업 등 향후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와 주요 공급선 개발에도 주력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신흥시장에서의 신규사업기회 확대 및 자원확보 경쟁이 더욱 가속화 되고, 에너지 고갈 등으로 인한 친환경 사업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LS네트웍스는 이러한 사업환경을 바탕으로 기존 종합상사와 차별화된 사업전략을 추진하고, 그룹사간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자원·에너지 분야로 진출해 상사형 사업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파이낸싱, 리스크 관리, 글로벌 네트워킹 등 상사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상사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유·무형의 자원과 제품, 브랜드와 가치를 전달하는
글로벌상사로 발전해 나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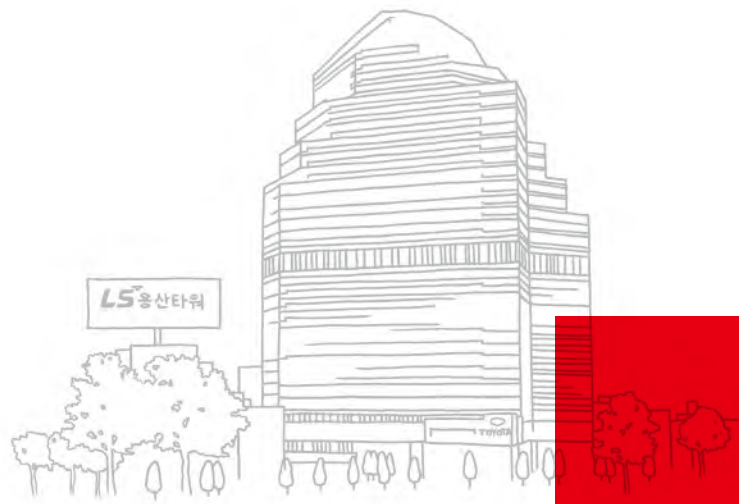


● 자산개발 사업

Asset Management Busi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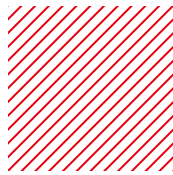
임대/개발을 통한 보유자산의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

LS네트웍스는 서울의 신도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용산지역 랜드마크인 LS용산타워를 필두로 김해부지, 물류센터와 냉동창고가 있는 성남, 인천항(자유무역지대)에 위치한 인천 CFS, 그리고 최근 물류센터 이전 부지로 개발 예정인 상주에 이르기까지, 기존 보유 자산부문과 신규 개발부문 등을 중심으로 자산개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산개발 사업은 회사의 안정적인 자금창출에 일조하고 탄탄한 재무구조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보유자산의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LS용산타워

1984년 건립 이후,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새롭게 탄생한 LS용산 타워는 LS네트웍스의 상징이자 든든한 자금창출원입니다. 서울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최상의 입지조건과 함께 용산지역의 개발 이슈, 최근 3년에 걸친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도심 최고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LS용산타워는 이러한 이점들을 바탕으로 입주 사에 대한 고객센터를 한층 강화하여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자산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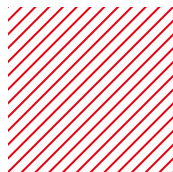


서울 도심 최고의 랜드마크!

LS네트웍스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김해/인천/성남/상주

**미래의 투자가치 향상과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전초기지입니다**



김해부지는 현재 김해물류센터와 일반 공장부지 임대 용도로 활용 중이며, 향후 개발계획에 따른 용도변경이 가능해지면 투자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무역지대인 인천항 내에 위치해 컨테이너 하역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천부지 또한 향후 LS네트웍스가 종합 무역상사를 확대해 중국 등으로 진출할 경우, 전초기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물류센터와 냉동창고가 있는 성남부지를 비롯해 물류센터 이전 부지로 개발 예정인 상주부지 또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가치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이며, 미래 자산가치의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투자 사업

Investment Business

다양하고 안정적인 투자 사업 활성화

LS네트웍스는 사업구조의 다양성과 유보자산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KTM 모터사이클, 푸룻뱅크 등에 대한 투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대비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재무구조를 튼튼히 다지기 위해 이트레이드증권에 재무적투자자(LP)로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www.etrade.co.kr



이트레이드증권 PEF

LS네트웍스는 2007년 1월 LS그룹 합류 이후, 현금유보액이 2,400억 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2008년 7월 온라인 증권사인 이트레이드 증권 인수를 위한 PEF*에 재무적 투자자(LP)로서 1,010억 원을 출자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이자 대비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PEF에 출자함으로써, 투자수의 극대화를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화하기 위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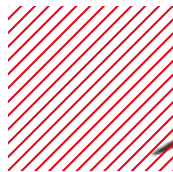
*PEF : 사모투자펀드

KTM 모터사이클

7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오스트리아의 세계적인 프리미엄 모터사이클 제조회사인 KTM의 제품을 국내에 독점으로 수입·판매하고 있는 SMK에 대해 2007년부터 간접투자 방식으로 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KTM 모터사이클은 다카르 랠리 2년 연속 우승 등 국제 오프로드 대회 사상 가장 많은 우승컵을 차지한 프리미엄 모터사이클 브랜드로 역동적인 성능과 탁월한 디자인을 통해 전 세계 바이커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www.ktm.co.kr



푸룻뱅크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썬키스트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종합 과일수입 대행사인 푸룻뱅크와 업무협약을 통해, LS네트웍스가 추구하는 예코와 웰빙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건강한 식생활문화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www.fruitbank.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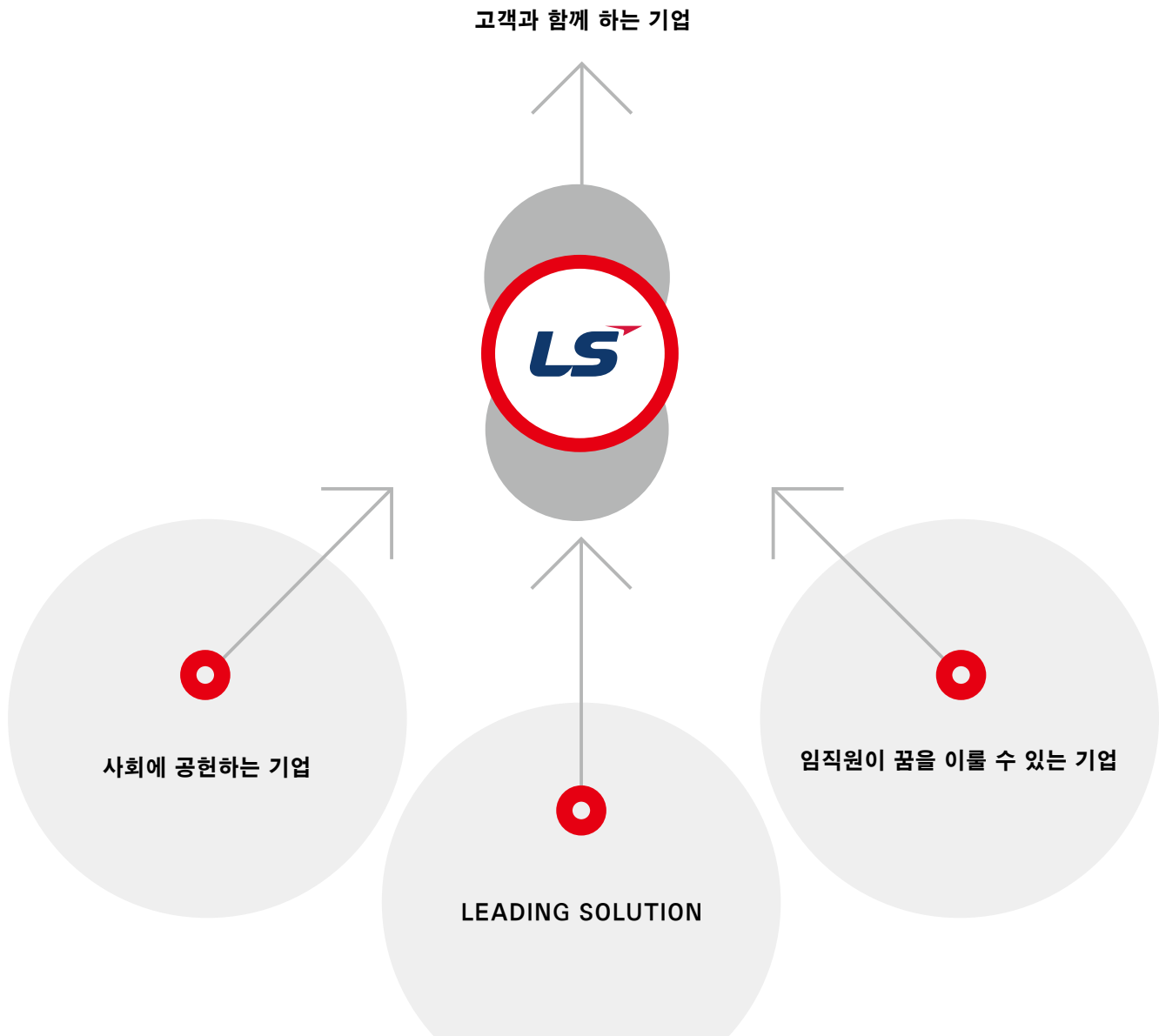
LS그룹

언제나 고객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LS그룹은 고객에게 Leading Solution을 제공하는 기업,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 임직원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모든 LS그룹의 임직원은 '고객과 함께 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 아래 LS그룹의 브랜드가 국내외 고객 여러분에게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매진할 것입니다.

- LS그룹 내 자회사들은 여러 B2B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최고를 지향하는 LS그룹은 고객에게 최고의 기술과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Always with our custom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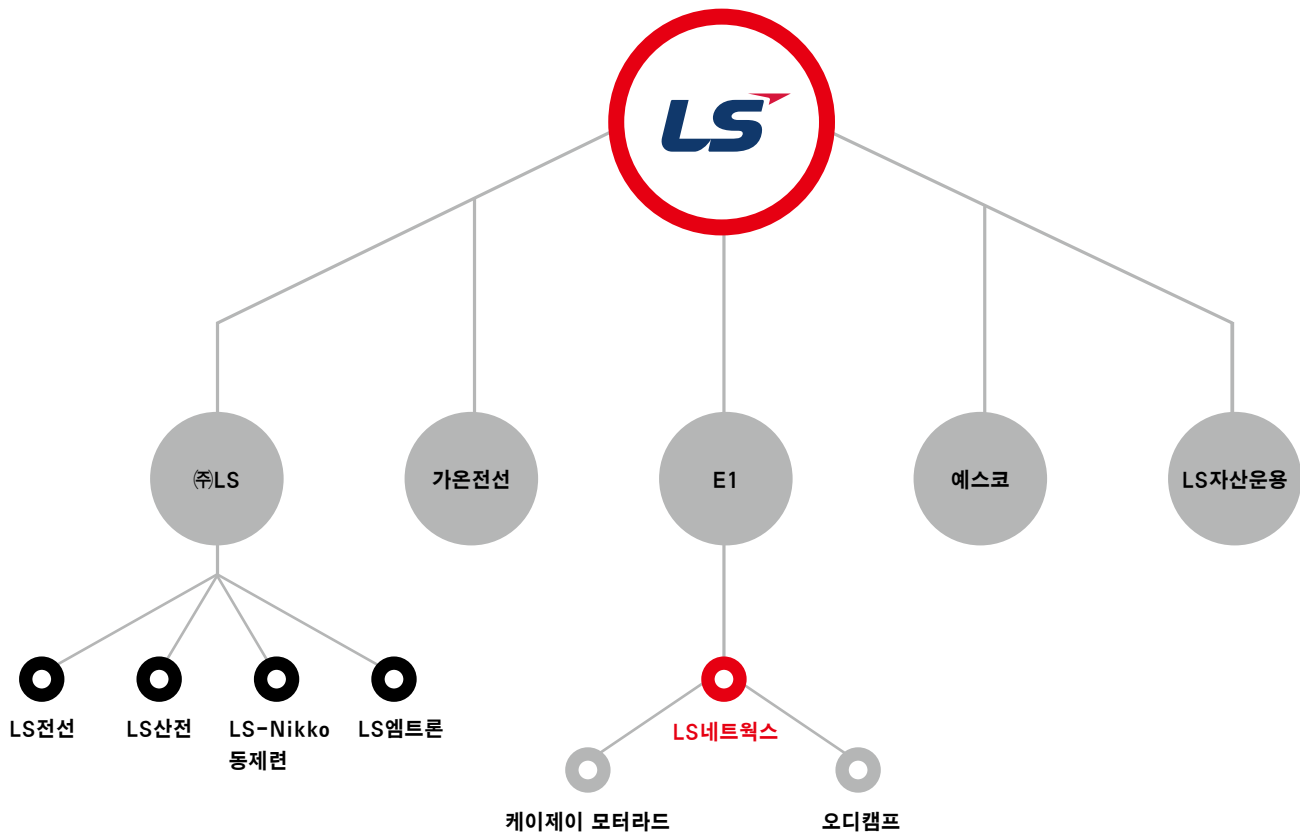


대한민국 1등 기업에서 세계 일류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LS그룹은 LS전선, LS산전, LS-Nikko동제련, LS엠트론, 가온전선, E1, 예스코 등의 주력 자회사를 중심으로 전기, 전자 및 소재분야에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LS그룹의 계열사들은 세계 일류 기업, 일류 솔루션 기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LS그룹 내 B2C 사업 개발 전략아이콘

LS그룹은 기존의 B2B 중심의 사업영역을 B2C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2007년 국제상사를 인수하고 LS네트웍스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인수 이후 LS네트웍스는 '멀티 브랜딩' 전략을 바탕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력 브랜드인 프로스펙스를 세계 10대 브랜드로 성장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사업과 레저, 패션 등 신규 사업투자도 좋은 성과를 거두며 LS네트웍스는 더 많은 고객과 만나고 있습니다.



재무 정보

39	주요 경영지표
40	경영실적 분석
44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45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46	재무상태표
49	손익계산서
5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52	자본변동표
53	현금흐름표

주요 경영지표

1. 손익현황

단위: 억 원

매출액 **+31.7%**



매출총이익 **+31.9%**



영업이익 **+43.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7.7%**



당기순이익 **+32.9%**



2. 재무현황

단위: 억 원

자산총계 **(2.2)%**



부채총계 **+2.5%**



자본총계 **(3.2)%**



경영실적 분석

본 경영실적 분석 및 전망은 개별 재무제표와 한국 회계기준(KOREA GAAP)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재무정보, 영업실적 및 사건에 관련한 추정, 계획 및 예상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영자의 계획과 전략 등에 대한 내용 등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경영실적 분석 및 전망은 향후 당사가 처하게 될 정치, 경제적 영업환경을 반영한 추정 계획 및 예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의 제반 정보에 대해 합리적 수준 이상으로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추정 계획 및 예상은 작성일 현재 시점의 사항만을 서술하므로 당사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당사는 특별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LS네트웍스'를 지칭합니다.

* 자회사 오디캠프 및 케이제이모터러드 현황은 본 내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 경영실적 분석 및 전망

2008년 시작된 금융위기 여파와 사상 최악의 구제역 전국확산, 이상 기후로 시작된 농산물 파동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가 급등하고, 민간소비가 둔화 되는 등 내수 경기 회복이 지체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지난 2010년 LS네트웍스는 브랜드 유통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내부역량 강화와 핵심 사업 집중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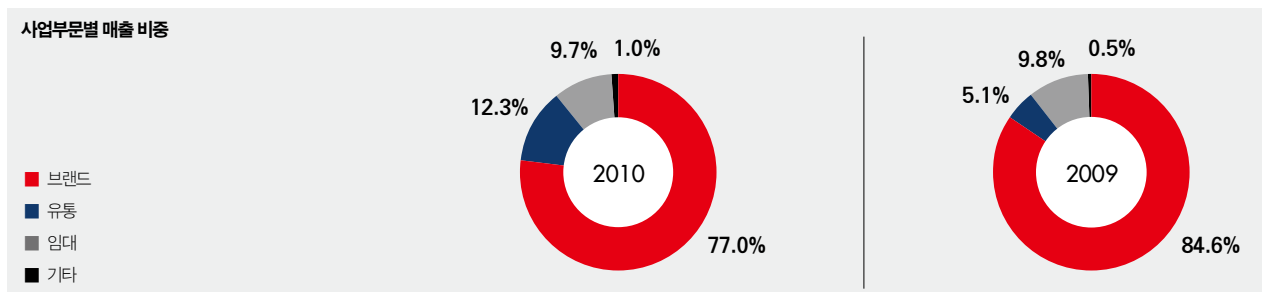
2. 영업실적

2010년 LS네트웍스는 유통사업의 주력인 토요타 자동차 리콜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브랜드 사업부문에서도 프로스펙스 W를 통한 국내 워킹화 시장에서 시장인지도 1위를 시현함으로써 기대이상의 경영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0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31.7%, 43.3% 증가한 3,582억 원과 299억 원을 기록하였고, 당기순이익도 전년대비 32.9% 증가한 195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억 원

	2010	2009	증감률
매출액	3,582	2,720	31.7%
영업이익	299	208	43.3%
당기순이익	195	147	32.9%

2010년 말 현재 LS네트웍스의 주요사업은 프로스펙스, 스케쳐스, 잭울프스킨을 핵심으로 한 브랜드 사업이 총 매출액의 77.0%, 유통 및 임대사업이 각각 12.3%, 9.7%의 매출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 및 영업이익

브랜드 사업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워킹화 W'를 중심으로 국내 워킹화 시장에서 지속적인 매출 신장을 이뤄낸 프로스펙스와 함께, 세계 주요 국가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스케처스, 잭울프스킨 등의 론칭을 통한 패션 및 고기능성 상품군의 도입으로 각 브랜드별 매출액이 전년대비 2~3배 신장하며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이익개선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10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9.9% 증가한 2,758억 원, 영업이익은 108.6% 상승한 196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LS네트웍스의 새로운 주력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유통사업은 2010년 1분기 토요타 리콜사태를 신속한 시장접근과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한 고객 맞춤형 영업 및 서비스 전략으로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바이클로라는 자전거 수입유통 브랜드의 직영점 진출이 시장 내 조기정착하여 2010년 매출액이 441억 원으로 전년대비 2배에 가까운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임대사업의 핵심부동산이라 할 수 있는 LS용산타워의 리모델링 공사가 2010년 4월 완료되고 중장기 입주고객을 중심으로 한 입주가 마무리 되면서 공실률이 1% 이하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발맞춰 입주고객에 대한 신속·정확한 만족서비스를 실천함에 따라 임대매출은 전년대비 30.0% 성장한 347억 원을 이룩하였고, 영업이익도 48.4% 신장된 154억 원을 실현하였습니다.

2011년도는 세계경제의 더블딥 우려와 국내 부동산 침체, 완만한 금리인상이 실질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민간소비가 소폭성장에 그칠 것이라 예상되는 가운데 그 어느 해보다도 시장내 경쟁이 치열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LS네트웍스는 신속한 시장접근으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의 기틀을 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위: 억 원

	2010	2009	증감률
매출액	3,582	2,720	31.7%
매출원가	1,768	1,345	31.4%
매출총이익	1,814	1,375	31.9%
판매비와관리비	1,515	1,167	29.9%
영업이익	299	208	43.3%
영업이익률	8.3%	7.7%	-

당기순이익

2010년 당기순이익은 195억 원으로 전년대비 32.9%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영업외수익이 동년 4월 단행된 유상소각으로 유보현금이 약 820억 원 감소하면서 이자수익이 전년대비 37억 원 감소하고, 영업외비용에서 재고자산폐기손실 19억 원 증가 등을 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위: 억 원

	2010	2009	증감률
영업이익	299	208	43.3%
영업외수익	74	65	14.5%
영업외비용	90	68	33.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83	205	37.7%
법인세비용	88	58	49.7%
당기순이익	195	147	32.9%
당기순이익률	5.4%	5.4%	-

3. 재무 상황

자산

2010년 당사의 자산총계는 1조 180억 원으로 전년대비 2.2%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 4월 유상소각으로 인한 약 820억 원의 현금유출과 동년 11월 유상증자로 인한 약 358억 원의 현금 유입으로 유동자산이 약 437억 원 감소한 결과입니다.

단위 : 억 원

	2010	2009	증감률
유동자산	1,657	2,094	(20.9)%
현금성자산	281	1,123	(74.9)%
매출채권	229	156	46.9%
재고자산	861	684	25.8%
기타 유동자산	286	131	116.9%
비유동자산	8,523	8,310	2.6%
투자자산	878	878	0.1%
유형자산	7,378	7,259	1.6%
기타 무형자산	267	173	54.1%
자산총계	10,180	10,404	(2.2)%

부채 및 자본

부채는 전년대비 2.5% 증가한 1,967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4.0%를 보였습니다. 특히, 비유동부채의 이연법인세부채 1,120억 원의 대부분은 지난 2009년 말 실시한 자산(토지에 한정) 재평가의 결과로 법인세효과에 대한 인식분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 부채비율은 10.3%에 해당됩니다. 이는 유동부채가 전년 대비 20.7% 증가하고 비유동부채는 0.9%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동부채 중 매입채무 47억 원이 증가하고, 비유동부채에서 임대보증금이 44억 원 증가한 데 기인합니다. 자본총계 또한 8,213억 원으로 전년대비 3.2% 감소하였습니다. 자본금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10년 4월 진행된 유상소각의 영향으로 감자차손 438억 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순이익이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누적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위 : 억 원

	2010	2009	증감률
매입채무	125	78	60.9%
장·단기차입금	34	34	1.3%
이연법인세부채	1,120	1,098	2.0%
기타 부채	688	709	(3.0)%
부채총계	1,967	1,919	2.5%
자본금	3,935	3,943	(0.2)%
자본조정	(464)	(18)	(2,516.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976	3,972	0.1%
이익잉여금	766	588	30.3%
자본총계	8,213	8,485	(3.2)%

4. 현금흐름

2010년 LS네트웍스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02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자산부채의 변동에 의한 285억 원의 현금유출과 전년대비 32.9% 증가한 당기순이익에 기인합니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326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단기금융상품의 감소로 인해 유입된 800억 원과 자회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61억 원 출자, LS웅산타워 리모델링 공사비 등의 유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469억 원의 유출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유상감자로 820억 원의 현금유출과 349억 원의 유상증자를 주 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 LS네트웍스는 41억 원의 현금이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단위 : 억 원

	2010	2009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2	435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26	(446)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69)	(12)
현금의 증가(감소)	(41)	(23)

5. 2011년 전망

2010년 LS네트웍스는 LS그룹에 합류한 이래 첫 3,000억 원 매출 돌파라는 의미 있는 기록을 남기며, 미래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신성장 사업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LS네트웍스는 2011년을 브랜드 유통 전문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원년으로 삼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경영방침을 '책임경영을 기반을 한 혁신과 도전정신으로 지속가능경영 기업으로서의 성과 창출'이라 정하고, '브랜드 BU'와 '글로벌상사 BU'별 독립 경영체제의 구축 및 책임경영을 실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과 경쟁사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각 사업별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 창출에 앞장서며, 보유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모색하여 확고한 거점을 조기에 확보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LS네트웍스는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는 기업, 친환경 미래 지향의 기업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초우량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2011년 3월 9일

주식회사 LS네트웍스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본 감사인은 첨부된 주식회사 LS네트웍스의 2010년 12월 31일과 200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과 2009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LS네트웍스의 자산총액의 1.3%와 1.2%를 차지하고 있는 자본법적용피투자회사인 주식회사 케이제이모터라드와 주식회사 오디캠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상기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표명의 기초로 이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LS네트웍스의 2010년 12월 31일과 200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대한민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한영회계법인 대표이사 권승화

權勝和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2011년 3월 9일

주식회사 LS네트웍스

대표이사 귀하

우리는 첨부된 주식회사 LS네트웍스의 2010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주식회사 LS네트웍스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보고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자는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서 "2010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10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경영자가 제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검토절차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이해하고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내용에 대한 질문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관련 문서의 확인 등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제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적발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을 기초로 미래기간의 내용을 추정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차나 정책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검토는 2010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0년 12월 31일 이후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기타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한영회계법인 대표이사 권승화

權勝和



재무상태표

제 61(당)기 2010년 12월 31일 현재

제 60(전)기 2009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61 (당) 기		제 60 (전) 기	
자산				
I. 유동자산		165,683,731,610		209,404,511,669
(1)당좌자산		79,611,888,828		141,006,411,797
1. 현금및현금성자산	17,657,187,096		21,769,314,613	
2. 단기금융상품	10,480,526,000		90,480,526,000	
3. 단기매도가능증권	4,510,000		1,510,000	
4. 매출채권	22,945,751,015		15,636,617,646	
대손충당금	(63,244,230)		(63,244,230)	
5. 미수금	4,538,167,256		3,832,896,188	
6. 미수수익	84,934,001		1,068,776,141	
7. 선급금	12,274,922,834		192,725,888	
8. 선급비용	61,582,534		62,584,103	
9. 이연법인세자산	11,627,552,322		8,024,705,448	
(2)재고자산		86,071,842,782		68,398,099,872
1. 상품	83,939,887,932		67,603,184,841	
평가충당금	(22,450,271)		(792,973,032)	
2. 제품	64,761,953		1,564,272,672	
평가충당금	(2,557,414)		(128,643,618)	
3. 원재료	58,948,275		13,218,900	
4. 저장품	1,363,230		40,277,250	
5. 미착품	2,031,889,077		98,762,859	
II. 비유동자산		852,287,564,851		831,033,107,437
(1)투자자산		87,777,035,580		87,728,166,735
1. 장기매도가능증권	74,275,599,670		75,138,438,811	
2.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3,382,352,710		12,446,477,924	
3. 장기대여금	119,083,200		143,250,000	
(2)유형자산		737,799,541,399		725,968,496,877
1. 토지	626,084,627,300		626,084,627,300	
2. 건물	136,343,560,685		123,270,960,991	
감가상각누계액	(43,203,142,430)		(37,673,648,492)	
3. 구축물	335,207,753		258,707,753	
감가상각누계액	(207,340,494)		(196,341,323)	
4. 기계장치	5,717,768,388		5,013,068,388	
감가상각누계액	(4,895,716,067)		(4,797,809,672)	

재무상태표

제 61(당)기 2010년 12월 31일 현재

제 60(전)기 2009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61(당)기		제 60(전)기	
5. 차량운반구	1,229,121,655		830,195,153	
감가상각누계액	(393,046,615)		(265,654,208)	
6. 집기비품	23,959,714,905		10,583,624,579	
감가상각누계액	(10,122,251,340)		(4,087,582,830)	
7. 공구와기구	2,505,949,182		2,330,559,137	
감가상각누계액	(2,090,293,096)		(1,810,375,625)	
8. 기타의유형자산	237,140,000		232,390,000	
감가상각누계액	(14,858,466)		(14,858,466)	
9. 건설중인자산	2,313,100,039		6,210,634,192	
(3)무형자산		4,689,289,697		5,111,270,300
1. 영업권	951,368,072		1,229,817,264	
2. 산업재산권	59,801,391		67,077,059	
3. 기타의무형자산	3,678,120,234		3,814,375,977	
(4)기타비유동자산		22,021,698,175		12,225,173,525
1. 장기미수금	3,061,987,214		3,061,987,214	
대손충당금	(2,067,225,481)		(2,067,225,481)	
2. 보증금	21,026,936,442		11,230,411,792	
자산총계		1,017,971,296,461		1,040,437,619,106
부채				
I. 유동부채		36,384,619,344		30,155,948,167
1. 매입채무	12,482,596,623		7,759,763,199	
2. 단기차입금	1,887,565,094		2,004,403,240	
3. 유동성장기차입금	82,209,090		-	
4. 미지급금	11,050,618,721		13,536,227,100	
5. 미지급비용	11,587,704		12,531,152	
6. 선수금	2,368,374,166		1,151,774,907	
7. 예수금	2,467,408,604		795,951,299	
8. 미지급법인세	6,034,259,342		4,895,297,270	
II. 비유동부채		160,344,313,701		161,781,388,701
1. 장기미지급금	1,917,543,224		1,919,287,224	
현재가치할인차금	-		(6,801,240)	
2. 장기차입금	1,565,541,447		1,404,597,416	
3. 임대보증금	26,899,898,500		22,465,631,000	
4. 예수보증금	16,887,532,962		15,720,996,537	

재무상태표

제 61(당)기 2010년 12월 31일 현재

제 60(전)기 2009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61 (당) 기		제 60 (전) 기	
5. 퇴직급여충당부채	9,064,327,243		10,542,126,216	
국민연금전환금	(73,005,594)		(104,985,444)	
퇴직연금운용자산	(7,943,476,117)		-	
6. 이연법인세부채	112,025,952,036		109,840,536,992	
부채총계		196,728,933,045		191,937,336,868
자본				
I. 자본금		393,464,130,000		394,278,995,000
1. 보통주자본금	357,637,710,000		394,194,765,000	
2. 우선주자본금	35,826,420,000		84,230,000	
II. 자본조정		(46,418,640,044)		(1,774,437,484)
1. 자기주식	(149,472,644)		(119,076,830)	
2. 감자차손	(45,431,417,853)		(1,632,990,669)	
3. 주식할인발행차금	(837,749,547)		(22,369,985)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97,611,393,661		397,223,156,331
1.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6,231,212,862		4,976,265,168	
2.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28,991,704,095)		(28,158,272,331)	
3. 부의지분법자본변동	(59,006,333)		(25,727,733)	
4. 유형자산재평가이익	420,430,891,227		420,430,891,227	
IV. 이익잉여금		76,585,479,799		58,772,568,391
1. 미처분이익잉여금	76,585,479,799		58,772,568,391	
자본총계		821,242,363,416		848,500,282,238
부채와자본총계		1,017,971,296,461		1,040,437,619,106

손익계산서

제 61(당)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 60(전)기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61(당)기		제 60(전)기	
I. 매출액		358,201,817,090		271,990,548,161
1. 제품매출액	756,117,003		4,178,962,980	
2. 상품매출액	321,082,669,493		239,470,128,170	
3. 임대수입	34,698,350,647		26,697,840,123	
4. 기타매출	1,075,131,482		1,108,355,072	
5. 수수료수입	589,548,465		535,261,816	
II. 매출원가		176,752,568,277		134,468,011,891
1. 제품매출원가	1,078,527,377		3,932,105,659	
가. 기초제품재고액	1,435,629,054		5,378,320,267	
나. 당기제품제조원가	-		-	
계	1,435,629,054		5,378,320,267	
다. 타계정으로대체	(294,897,138)		(10,585,554)	
라. 기말제품재고액	(62,204,539)		(1,435,629,054)	
2. 상품매출원가	157,394,134,610		116,150,147,048	
가. 기초상품재고액	66,810,211,809		58,117,255,546	
나. 당기상품매입액	176,674,152,426		125,455,858,959	
계	243,484,364,235		183,573,114,505	
다. 타계정으로대체	(2,172,791,964)		(612,755,648)	
라. 기말상품재고액	(83,917,437,661)		(66,810,211,809)	
3. 임대원가	16,544,928,375		14,251,691,800	
4. 기타매출원가	1,734,977,915		134,067,384	
III. 매출총이익		181,449,248,813		137,522,536,270
IV. 판매비와관리비		151,588,300,514		116,688,455,427
1. 급여	18,906,772,883		16,057,156,250	
2. 퇴직급여	2,536,580,943		1,758,346,992	
3. 복리후생비	3,293,599,409		2,413,598,905	
4. 교육훈련비	221,128,243		56,066,476	
5. 여비교통비	1,055,296,839		661,773,186	
6. 통신비	594,216,357		477,520,582	
7. 수도광열비	357,275,460		377,718,708	
8. 세금과공과	327,048,123		293,104,403	
9. 임차료	3,619,148,100		2,247,332,593	
10. 감가상각비	3,856,954,979		1,760,488,120	
11. 무형자산상각비	1,249,003,953		544,814,991	

손익계산서

제 61(당)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 60(전)기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61(당)기		제 60(전)기	
12. 수선비	237,190,337		223,237,357	
13. 보험료	114,517,043		67,259,130	
14. 접대비	1,175,265,155		883,366,244	
15. 광고선전비	21,702,858,126		15,957,158,994	
16. 견본비	214,743,445		152,046,835	
17. 포장비	874,712,569		570,389,479	
18. 경상개발비	547,265,284		448,178,263	
19. 운반비	1,431,842,647		1,306,301,747	
20. 지급수수료	88,427,801,239		69,565,130,382	
21. 차량유지비	334,783,325		269,379,637	
22. 소모품비	442,232,422		504,414,885	
23. 도서인쇄비	68,063,633		57,931,009	
24. 보관료	-		3,088,000	
25. 대손상각비	-		32,652,259	
V. 영업이익		29,860,948,299		20,834,080,843
VI. 영업외수익		7,380,983,780		6,445,414,994
1. 이자수익	1,502,183,206		5,194,763,046	
2. 배당금수익	450,659,820		494,080	
3.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		579,420	
4. 외환차익	406,260,332		228,378,955	
5. 외화환산이익	68,260,337		53,675,222	
6. 유형자산처분이익	2,807,724		3,364,000	
7. 전기오류수정이익	2,806,072,202		-	
8. 잡이익	2,144,740,159		964,160,271	
VII. 영업외비용		8,989,365,464		6,756,169,388
1. 이자비용	112,527,580		64,667,892	
2. 재고자산폐기손실	1,862,197,833		80,159,178	
3. 외환차손	285,785,380		130,622,509	
4. 외화환산손실	23,890,949		6,179,790	
5. 기부금	152,095,840		201,526,500	
6.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1,400,000,000		-	
7. 유형자산재평가손실	-		150,415,411	
8. 유형자산처분손실	461,698		554,648,644	
9. 지분법손실	5,130,846,614		5,545,168,103	
10. 잡손실	21,559,570		22,781,361	

손익계산서

제 61(당)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 60(전)기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61(당)기		제 60(전)기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8,252,566,615		20,523,326,449
IX. 법인세비용		8,784,294,553		5,870,079,675
X. 당기순이익		19,468,272,062		14,653,246,774
XI. 주당순이익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		239		186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61(당)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처분확정일 : 2011년 3월 24일)

제 60(전)기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처분확정일 : 2010년 3월 12일)

단위 : 원

과 목	제 61(당)기		제 60(전)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76,585,479,799		58,772,568,391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57,117,207,737		44,119,321,617	
2. 당기순이익	19,468,272,062		14,653,246,774	
II. 이익잉여금처분액		47,519,310,652		1,655,360,654
1. 이익준비금의 적립	107,388,450		-	
2. 현금배당	1,073,884,500		-	
주당배당금액(율):				
당기: 보통주 14원(0.28%)				
우선주 10원(0.20%)				
3. 주식배당	627,370,000		-	
주당배당금액(율):				
당기: 보통주 7원(0.14%)				
우선주 14원(0.28%)				
4. 감자차손	45,431,417,853		1,632,990,669	
5. 주식할인발행차금	279,249,849		22,369,985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9,066,169,147		57,117,207,737

자본변동표

제 61(당)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 60(전)기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 계
2009.01.01(전기초)	394,278,995,000	(1,796,807,469)	(30,458,226,780)	44,141,691,602	406,165,652,353
당기순이익	-	-	-	14,653,246,774	14,653,246,774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	-	22,369,985	-	(22,369,985)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	420,430,891,227	-	420,430,891,227
부이지분법자본변동	-	-	12,513,867	-	12,513,867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	7,237,978,017	-	7,237,978,017
2009.12.31(전기말)	394,278,995,000	(1,774,437,484)	397,223,156,331	58,772,568,391	848,500,282,238
2010.01.01(당기초)	394,278,995,000	(1,774,437,484)	397,223,156,331	58,772,568,391	848,500,282,238
당기순이익	-	-	-	19,468,272,062	19,468,272,062
감자차손의 상각	-	1,632,990,669	-	(1,632,990,669)	-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	-	22,369,985	-	(22,369,985)	-
유상감자	(36,564,865,000)	(45,461,813,667)	-	-	(82,026,678,667)
유상증자	35,750,000,000	(837,749,547)	-	-	34,912,250,453
부이지분법자본변동	-	-	(33,278,600)	-	(33,278,600)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	421,515,930	-	421,515,930
2010.12.31(당기말)	393,464,130,000	(46,418,640,044)	397,611,393,661	76,585,479,799	821,242,363,416

현금흐름표

제 61(당)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 60(전)기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과 목	제 61(당)기		제 60(전)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232,360,232		43,509,724,154
1. 당기순이익	19,468,272,062		14,653,246,774	
2. 현금의유출이없는비용등의가산	22,151,115,863		14,509,424,460	
감가상각비	9,672,510,985		5,576,914,709	
무형자산상각비	1,249,003,953		544,814,991	
유형자산처분손실	461,698		554,648,644	
퇴직급여	2,805,494,187		2,008,396,884	
이자비용(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	6,801,240		12,986,186	
재고자산폐기손실	1,862,197,833		80,159,178	
지분법손실	5,130,846,614		5,545,168,103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1,400,000,000		-	
외화환산손실	23,799,353		2,901,643	
대손상각비	-		32,652,259	
자산재평가차손	-		150,415,411	
접손실	-		366,452	
3. 현금의유입이없는수익등의차감	(2,877,140,263)		(54,344,822)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		579,420	
유형자산처분이익	2,807,724		3,364,000	
외화환산이익	68,260,337		50,401,402	
전기오류수정이익	2,806,072,202		-	
4.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	(28,509,887,430)		14,401,397,742	
매출채권	(7,307,675,526)		(1,400,949,342)	
미수금	(705,271,068)		(555,501,477)	
미수수익	983,842,140		3,435,803,139	
선급금	(82,196,946)		(97,728,342)	
선급비용	1,001,569		9,152,695	
재고자산	(19,535,940,743)		477,611,796	
이연법인세	(1,536,320,939)		(469,394,449)	
매입채무	4,726,047,905		1,745,119,559	
미지급금	(2,485,463,508)		5,787,236,520	
예수금	1,671,457,305		(1,199,625,711)	
선수금	1,216,599,259		650,483,000	
미지급비용	(943,448)		(263,845,373)	
미지급법인세	1,138,962,072		1,917,083,615	

현금흐름표

제 61(당)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 60(전)기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61(당)기		제 60(전)기	
예수보증금	1,166,536,425		16,740,814	
퇴직금의지급	(4,283,293,160)		(952,815,842)	
국민연금전환금	31,979,850		8,636,000	
퇴직연금운용자산	(7,943,476,117)		-	
임대보증금	4,434,267,500		5,293,391,14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2,605,725,701		(44,629,662,079)
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90,385,563,166		60,351,627,827	
단기금융상품의감소	90,000,000,000		60,000,000,000	
단기매도가능증권의처분	1,510,000		22,860,000	
장기매도가능증권의처분	-		986,358	
장기대여금의감소	104,166,800		58,950,000	
보증금의감소	49,000,000		10,000,000	
차량운반구의처분	225,636,366		3,364,000	
집기비품의처분	5,250,000		7,066,000	
합병으로인한현금유입	-		248,401,469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57,779,837,465)		(104,981,289,906)	
선금금의증가	12,000,000,000		-	
단기금융상품의증가	10,000,000,000		50,049,634,640	
장기매도가능증권의취득	1,265,820		457,080	
장기대여금의증가	80,000,000		60,000,000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취득	6,100,000,000		800,000,000	
보증금의증가	9,845,524,650		4,491,740,000	
토지의취득	-		4,303,210,794	
건물의취득	9,036,065,541		32,640,745,166	
구축물의취득	76,500,000		-	
기계장치의취득	704,700,000		215,308,177	
차량운반구의취득	670,644,734		523,509,648	
집기비품의취득	8,118,973,325		3,990,976,838	
공구와기구의취득	175,390,045		67,256,200	
기타의유형자산의취득	4,750,000		173,590,000	
건설중인자산의증가	139,000,000		4,036,534,153	
산업재산권의취득	10,811,240		34,182,920	
기타의무형자산의취득	816,212,110		3,594,144,290	

현금흐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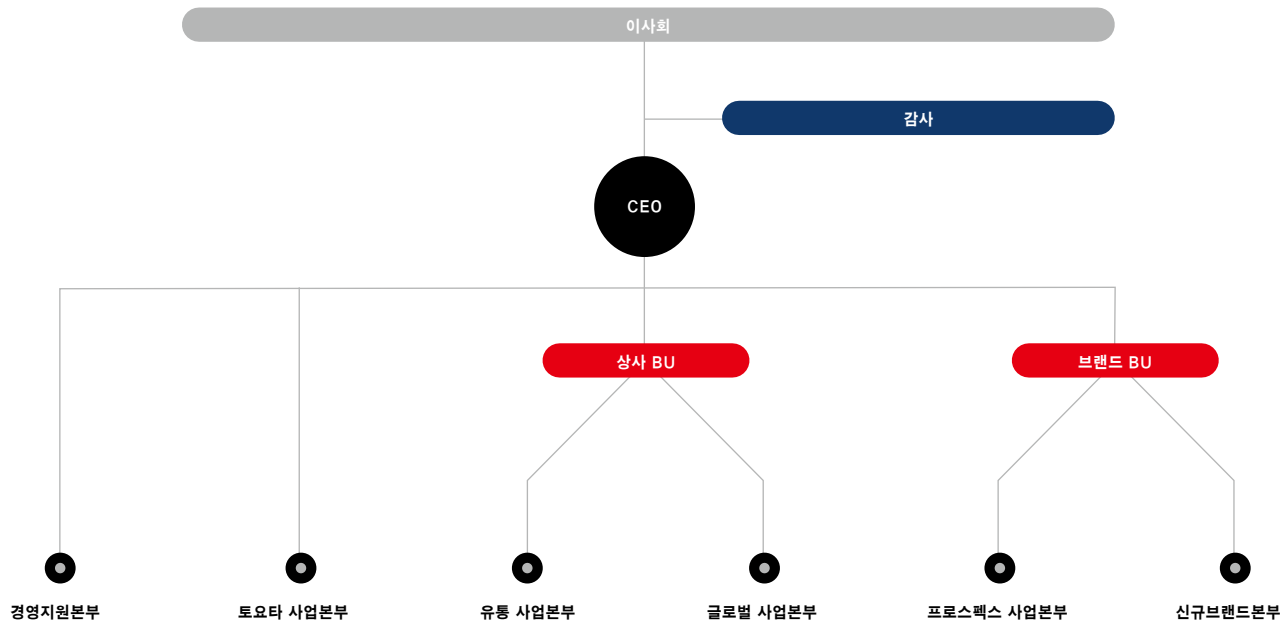
제 61(당)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 60(전)기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과 목	제 61(당)기		제 60(전)기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6,950,213,450)		(1,161,291,910)
1.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44,000,629,389		1,404,597,416	
단기차입금의증가	7,714,037,248		-	
장기차입금의증가	1,374,341,688		1,404,597,416	
유상증자	34,912,250,453		-	
2.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90,950,842,839)		(2,565,889,326)	
단기차입금의감소	7,791,231,605		2,565,889,326	
장기미지급금의감소	1,744,000		-	
장기차입금의상환	1,131,188,567		-	
유상감자	82,026,678,667		-	
IV. 현금의 감소(Ⅰ+Ⅱ+Ⅲ)		4,112,127,517		2,281,229,835
V. 기초의현금		21,769,314,613		24,050,544,448
VI. 기말의현금		17,657,187,096		21,769,314,613

● LS네트웍스 조직도



IR contact

140-70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91 LS용산타워 12층

TEL 02-799-7114, 7044
 FAX 02-6442-5423
 E-MAIL lsn-ir@lsnetworks.com

www.lsnetworks.com

With LS Networks, Your life will change

LS네트웍스와 함께 당신의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건강과 환경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자연을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LS네트웍스는 친환경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자연의 친구, Eco Friend'로서 고객의 삶을
보다 더 행복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0-70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91 LS용산타워

TEL 02-799-7114, 7044

FAX 02-6442-5423